

한국판 노인차별주의 척도의 타당화: 대학생 표본을 대상으로

김지연 김민희* 민경환
서울대학교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서울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Fraboni, Saltstone과 Hughes(1990)가 개발한 노인차별주의 척도인 FSA(Fraboni scale of ageism)의 한국판 타당화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생 336명으로 구성된 표본 A와 대학생 192명으로 구성된 표본 B를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표본 A를 대상으로 한 탐색적 요인분석 과정에서 내적합치도, 요인부하량, 문항내용을 고려하여 부적절한 문항 11개를 삭제하였고, 최종적으로 정서적 회피, 차별, 고정관념의 3요인으로 구성된 18문항의 한국판 FSA척도를 완성하였다. 척도의 전체 및 하위요인의 내적합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본 B를 대상으로 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발견한 3요인 모형이 대안 모형보다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타당도, 변별타당도 및 예언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표본 A를 대상으로 관련 변인들과의 상관을 확인한 결과 FSA는 노인에 대한 태도, 부정적 노인 차별행동과 정적상관을, 노화에 대한 지식, 노인과의 접촉 빈도 및 질, 긍정적 노인차별행동과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사회적 바람직성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판 노인차별주의 척도가 노인차별주의를 측정하는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임을 의미한다.

주요어: 한국판 노인차별주의 척도, 노인차별주의, 노인에 대한 태도, FSA

출산율이 저하되고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비율이 2000년에 7.1%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통계청, 2011).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증가 속도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으로 개인적,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퇴직 후에 경제적으로 일정한 수입 없이 몇 십 년을 더 살게 되면서

경제적 곤란을 겪고, 노화로 인해 신체적 건강이 나빠지고, 배우자나 친구의 사망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경험하는 등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서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급속한 사회변화로 인해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기 어렵게 되었고(이창호, 2002), 이러한 이해부족이 젊은 층의 부양부담 문제와 맞물리면서 세대 간 갈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고령화와 관련된 이와 같은 문제들은 노인인구가 증가할수록 더욱 심각해질

* 교신저자 : 김민희, (137-865) 서울 서초구 효령로 366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E-mail: pseudo@kcgu.ac.kr

것이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이 시급하다.

고령화 문제 연구자들은 세대 간 갈등을 설명해줄 수 있는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노인차별주의(ageism)를 제안한다(김옥, 2003; North & Fiske, 2012). 영어에서 ageism은 나이를 이유로 대상에게 부정적인 태도나 행동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Butler, 1980; Greenberg, Schimmel, & Martens, 2002). 나이로 인한 차별은 비단 노인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며, 나이 어린 사람 역시 청년과 노인에 의해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Nelson, 2002). 하지만 나이 어린 사람은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되면 차별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노인은 죽을 때까지 차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에서 노인 집단에 대한 차별은 다른 연령 집단에 대한 차별과는 질적으로 다르다(Iversen, Larsen, & Solem, 2009). 이와 같은 이유에서 연구자들은 젊은 사람에 대한 차별보다는 노인에 대한 차별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ageism을 일반적으로 노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으므로(Nelson, 2002; Iversen 등, 2009), 본 연구에서도 ageism을 노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한정시키는 용어인 노인차별주의로 사용하고자 한다.

노인차별은 성차별, 인종차별과 함께 사회에서 발생하는 3대 차별 중 하나이다(Nelson, 2005). 나이, 성별, 인종은 사회적 범주화가 이루어지는 3가지 주요차원으로(North 등, 2012; Nelson, 2005, 2002; Iversen 등, 2009), 노인차별, 성차별, 인종차별은 범주화를 바탕으로 특정 집단에게 가해지는 부정적인 편견 및 차별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Cuddy & Fiske, 2002; Nelson, 2005). 하지만 노인차별은 몇 가지 이유에서 성차별, 인종차별과는 다르다. 첫째, 모든 사람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Cuddy 등, 2002; North 등, 2012). 성별과 인종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차원에서는 범주의 이동이 불가능하지만, 나이는 계속해서 변하므로 누구나 젊은이의 범주에서 노인의 범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젊은 사람의 노인차별은 곧 미래에 자신이 속하게 될 집단에 대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이러한 노인차별주의는 장기적으로 볼 때

자기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데(Snyder & Meine, 1994; Nelson, 2002에서 재인용), 노인차별은 이러한 위협을 감수하고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성차별이나 인종차별과 달리 독특하다. 이는 노인차별이 성차별, 인종차별과는 다른 원인, 기제, 결과를 가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셋째, 노인차별은 성차별, 인종차별에 비해 사회 구성원들이 그것이 차별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Nelson(2005)은 노인차별주의 연구가 성차별주의나 인종차별주의 연구에 비해 적은 이유는 노인에 대한 편견이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형태로 존재하여 연구자들이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노인차별주의는 우리 사회 내에서 쉽게 발견되는 현상으로(Palmore, 2001), 성차별주의이나 인종차별주의보다 더 널리 퍼져있다(Rupp, Vodanovich, & Crede, 2005). 예를 들어 의학계에서는 전반적으로 노인병학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으며(Levenson, 1981), 의사들은 노인들의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병을 노화에 의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여겨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Bowling, 2007; North 등, 2012). 또한 직업장면에서는 생물학적 나이가 직무 수행능력을 예측하는 타당한 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Cleveland & Landy, 1983; Laczko & Philipson, 1991; Liden, Silwell, & Ferris, 1996; Sgrave, 2001; Wilckning, 2002; Rupp 등, 2005에서 재인용), 채용 과정에서 노인 지원자는 젊은 지원자보다 일반적으로 더 낮은 평가를 받는다(Avolio & Barrett, 1987). 뿐만 아니라 미디어 역시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그대로 반영하는 노인 캐릭터를 생산해냄으로써 노인차별을 부추기는데(North 등, 2012), 예를 들어 TV 드라마나 광고에서 노인은 소외대상이나 보호가 필요한 대상, 혹은 주류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주변인으로 표현되고 있다(김미정, 2010; North 등, 2012).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노인들 대부분은 실제로 다양한 노인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한다(김옥, 2003; Palmore, 2001).

노인차별주의는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은 노인 차별적인 언어와

행동을 매개하여 노인의 자존감을 낮추고 수행을 저하시켰고(McCann & Giles, 2002; Levy, Ashman, & Dror, 2000; Levy, Hausdorff, Hencke, & Wei, 2000; Rupp 등, 2005에서 재인용), 노인들은 부정적 고정관념을 내면화하여 기억력 감퇴, 인지적 혼란, 신체적 쇠약과 같은 모습을 보였다(Levy & Leifheit-Limson, 2009; Levy, Zonderman, Whitbourne, S., & Sneed, J., 2002). 또한 노인차별이 존재할 때 이는 노인들의 자기충족적 예언으로 이어져 노인들은 낮은 자존감과 낮은 통제력을 경험하게 되고 점차 말, 생각, 행동이 느려진다(Rodin & Langer, 1980). 국내 연구들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는데, 노인차별 경험은 우울과 고독의 증가 및 부정적 자기개념과 관련이 있었고(원형희, 2005; 안준희, 김승용, 2009; 정상남, 신학진, 2011), 남성 노인의 경우에는 노인차별 경험이 가족 및 동년배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남석인, 2008). 한편, 직업장면에서는 노인은 완고하고, 생산성이 낮고, 새로운 기술 습득을 꺼려하고, 덜 창의적이고, 교육시키기 힘들다는 편견이 팽배해 있어(Shore & Goldberg, 2004), 채용이나 고용유지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Gordon & Arvey, 2004; Ng, & Feldman, 2009).

사회적 차원에서는 노인차별로 인해 세대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이로 인한 사회 통합의 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노인차별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노인들은 퇴직의 위협을 받는 한편 재취업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젊은 사람들과 동등한 주체가 아니라 부양을 받아야 할 존재로 여겨지면서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불평등은 불만과 적개심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또한 노인차별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데, 미국의 경우 1994년부터 2000년까지 노인차별 관련 소송비가 평균 268,926 달러였으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추세이다(Rupp 등, 2005).

이렇듯 노인차별주의가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여러 연구자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과연 노인차별이 범문화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개념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많은 연구자들이 동아시아 문화권은 전통적으로 노인공경을 강조하는 문화이며, 개인보다는 집단을 중시하는 집합주의 문화이기 때문에 서구문화에 비해 노

인차별 경향이 낮을 것이라고 보았다(Cuddy, Norton, & Fiske, 2005; Bodner & Lazar, 2008). 서구 문화권은 젊음을 중시하고, 노인과 노화에 대해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는 경향이 있는 반면(Barak, Mathur, Lee, & Zhang, 2001; Levy & Langer, 1994; Tusno & Homma, 2009에서 재인용), 동아시아는 전통적으로 유교 문화권으로 노인을 공경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노인의 긍정적인 역할을 존중하고 중시한다(Boggatz & Dassen, 2005; Ryan, Jin, Anas, & Luh, 2004)는 주장을 근거로 하여 Giles, McCann, Ota와 Noels(2002)는 동아시아 문화권이 서구 문화권에 비해 노인과 노화에 대한 이미지가 더 긍정적일 것이라고 예상하였고(Ryan 등, 2004), Chang, Chang과 Shen(1984)은 동아시아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사회 내 영향력이 커지고 존경을 더 많이 받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노인차별주의와 관련된 문화차 연구는 모순된 결과를 보여준다. Barak 등(2001)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연령 역할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노인의 역할에 대한 한국인, 중국인, 인도인과 서구인의 생각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uddy 등(2005)은 한국을 포함한 6개 나라를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노인은 온정적이지만 무능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범문화적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한국인, 캐나다인을 대상으로 한 Ryan 등(2004)의 연구와 서구 문화권을 대상으로 한 연구(Hess & Blanchard-Fields, 1999; Hummert, Ryan, & Bonnesen, 2004) 모두에서 사람들이 노인의 일상적 기능에 대해 부정적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몇몇 연구는 동아시아 문화권이 서구 문화권보다 오히려 노인차별 경향이 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인과 미국인의 노화불안 정도를 연구한 Yun과 Lachman(2006)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한국인이 미국인보다 노화불안이 더 심했다. 노화불안이 높을수록 노인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경향이 있다는 기존 연구로 미루어 볼 때(Depola 등, 2003; Lasher & Faulkender, 1993), 한국인이 미국인보다 오히려 노인차별적 태도가 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Jin, Ryan과 Anas(2001)의 연구에서도 한국인이 미국인보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외에도 미국인, 한국인, 홍콩인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태도를 알아본 연구에서 한국인과 미국인이 노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 태도의 정도는 비슷하였고, 홍콩인이 가장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문화차 연구들이 노인차별주의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노화불안, 연령에 대한 태도 등은 노인차별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들에 대한 연구 결과가 동아시아 문화권과 서구 문화권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노인차별주의 역시 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유사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노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의 역사를 개괄한 Fraboni, Saltstone과 Hughes(1990)에 따르면, 서구의 경우 1944년에 노인에 대한 지각 및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으며(Dinkle, 1944),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주로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측정하는 도구들이 개발되었다. 예로 Kogan의 Old People Scale(1961)은 인종주의 고정관념 연구에서 사용되는 문항을 변형시켜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노인에 대한 일반적인 고정관념뿐만 아니라 독특한 구성개념까지 확인할 수 있는 다차원적 측정도구가 개발되었다. Palmore(1988)의 Facts on Aging Quiz는 실증 연구를 바탕으로 노화에 대한 사실 정보를 문항으로 구성함으로써 기존 척도와 차별성을 가졌고, Salter와 Salter(1976)는 노인에 대한 응답자의 믿음 및 행동과 관련된 6가지 영역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인 The Salter View of Elderly Scale을 개발하였다.

노인차별을 측정하는 이들 도구들은 대부분 인지적 요소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Fraboni 등, 1990). 하지만 많은 노인차별 연구자들은 노인차별이 인지적 요소뿐만 아니라 정서적 요소와 행동적 요소를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Butler(1995)는 노인차별을 노인에 대한 편견적 태도, 고정관념화 과정 및 사회적 역할에 관한 차별적 관습이라고 보았고, Cuddy 등(2002)은 노인차별은 정서적 요소인 편견, 인지적 요소인 고정관념, 행동적 요소인 차별의 세 가지 기제로 작동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Cuddy와

Fiske(2007)는 특정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정서가 서로 다른 행동경향성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하였고, Zajonc(1998)은 정서가 인지와 행동을 동기화시킨다고 여겼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편견, 고정관념, 차별은 서로 중첩되지만 구분되는 개념이며, 따라서 구성개념으로서의 노인차별 역시 이 세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노인관련 태도 척도의 역사를 개관한 후, Fraboni 등(1990)은 기존의 도구들이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믿음, 오개념과 같은 인지적 요소만 측정한다고 비판하면서 노인차별주의를 보다 완벽하게 측정하기 위해 노인을 향한 차별적인 행동 및 노인을 회피하고 싶은 소망도 반영하는 도구인 FSA(Fraboni scale of ageism)를 개발하였다. 척도의 문항은 Butler의 노인차별주의 정의를 기초로 하여 Allport(1954)가 제안한 편견의 다섯 수준 중 세 수준 즉, 적대적인 말(antilocution), 회피(avoidance), 차별(discrimination)이 반영되도록 구성하였다. 적대적인 말은 노인에 대한 잘못된 개념과 정보, 미신에 의한 적의 및 반감에 대해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의미하며, 회피는 노인과의 사회적 접촉을 피하려는 것을 의미하며, 차별은 노인의 고용이나 지역 시설 이용과 같은 사회적 권리를 제한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Fraboni 등(1990)은 102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예비 연구를 실시한 후, 231명의 캐나다 대학생 및 노동자를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29개 문항을 선정하고, 다시 예비 연구에서 사용했던 102명의 고등학생 데이터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가정했던 3요인 즉, 적대적인 말, 회피, 차별의 구조를 확인하였다. Rupp 등(2005)은 FSA가 노인차별주의의 다차원적 속성을 균형있게 측정하는 도구라고 평가하며 심리측정적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 재타당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우선 미국 대학생 201명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6문항이 제외되었고 원 척도의 요인 구조와는 다른 고정관념, 분리, 정서적 태도의 3요인 구조가 발견되었다. 고정관념 요인은 노인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기술한 문항으로 구성되며, 분리 요인은 노인과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마음을 기술한 문항으로 구성되며, 정서적 태도 요인은 노인에 대한 정서적 태

도를 반영하는 문항으로 구성된다. 이에 대해 Rupp 등(2005)은 고정관념 요인은 노인차별주의의 인지적 요소를 반영하고 분리 요인과 정서적 태도 요인은 정서적 요소를 반영하므로 원 척도의 요인구조보다 FSA 개발 의도에 더 부합하는 요인구조라고 주장하였다. 새로운 3요인 모델은 353명의 대학생 표본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화되었다.

FSA는 노인차별주의의 다차원적 개념을 측정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권에서 노인차별주의를 연구하기 위한 도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Bodner 등(2008)은 이스라엘 학생들의 노인차별주의의 구조 및 인구학적 변인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FSA를 변안하여 사용하였고, Boudjemad와 Gana(2009)는 Rupp가 재타당화한 FSA를 바탕으로 프랑스판 FSA를 타당화하였다. 또한, 중국에서는 張卓(2010)이 노인차별주의의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를 위해 중국판 FSA를 타당화하였다.

노인차별주의가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 및 회피하고 싶은 소망과 적대적인 차별행동 의도를 모두 포함한다면, 전반적인 노인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Rupp 등(2005)의 연구에서 FSA로 측정된 노인차별주의와 ASD(Rosencranz & McNevin, 1969)와 OP(Kogan, 1961)로 측정된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 간 상관을 확인한 결과, 노인차별 경향성이 심할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 역시 부정적이었다.

노화에 대한 지식도 노인차별주의와 관련성을 가지는데, 여러 연구에서 노화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노화에 대한 두려움과 노인에 대한 부적 편견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얻었다(한정란, 2003; Fraboni 등, 1990). Holtzman, Beck과 Ettinger(1981)는 의대생을 대상으로 노인의학 과목을 수강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비교하였는데 수업을 들었던 집단이 노화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았으며, 이것은 노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로 연결되었다. 노화에 대한 지식은 노화와 노인에 대한 미신이 아닌 사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Palmore, 1988), 노화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적게 가질 것이다. 또한 고정관념, 편견, 차별행동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노화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전반적으로 노인차별주의 경

향이 낮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노인과의 접촉 빈도 및 질 역시 노인차별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집단 간 편견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제안된 것이 바로 대상 집단과의 접촉이다. Allport(1954)의 접촉이론(contact hypothesis)에 따르면 외집단 구성원과의 긍정적 경험은 편견을 줄여주고 집단 간 사이를 좋아지게 한다. 이를 지지해주는 경험적 증거의 예로 학기 중에 노인과 함께 하는 활동을 많이 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Aday, Sims, & Evans, 1991).

국내에는 ‘노인차별 피해경험 척도’(원영희, 2005)와 같이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차별경험을 측정하는 도구는 있으나 젊은 사람들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반영하는 노인차별주의를 측정할 수 있는 타당화된 도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차별주의의 다차원적 속성을 측정해주는 도구인 FSA를 한국인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요인구조를 탐색하여 한국판 노인차별주의 척도를 타당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적절한 요인구조를 탐색하고 이후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이를 검증할 것이다. 또한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합치도 및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고, 구성 타당도, 변별 타당도, 예언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노인에 대한 태도, 노화에 대한 지식, 노인과의 접촉 빈도 및 질, 사회적 바람직성, 노인차별행동과의 상관을 살펴볼 것이다.

방 법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서울, 경기도 및 강원도 소재 대학교 학부생 345명으로 구성된 표본 A와 서울 소재 대학교 학부생 195명으로 구성된 표본 B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표본 A는 탐색적 요인분석 및 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에 사용하였고, 표본 B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사용하였다. 표본 A에서 세 명은 외국인 피험자로 설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

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외하였고, 설문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1명을 추가로 제외하였다. 피험자 연령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인 5명을 제외하여 총 336명의 표본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참가자의 연령범위는 18~25세, 평균 연령은 21.5세($SD=2.02$)였고, 이 중 남성이 140명, 여성이 196명이었다. 336명 중 무선으로 147명을 선별하여 첫 번째 설문이 끝나고 3주 후 같은 설문을 작성하도록 하여 검사-재검사 분석에 사용하였다. 한편, 표본 B에서는 30세 이상인 3명을 제외한 192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참가자의 연령범위는 17~28세, 평균 연령은 21.6세($SD=2.75$)였고, 이 중 남성은 115명, 여성은 75명이었으며 2명은 성별을 밝히지 않았다.

측정도구

노인차별주의

Fraboni 등(1990)이 개발한 노인차별주의 척도(Fraboni Scale of Ageism: FSA)를 사용하였다. FSA는 적대적인 말(antilocution), 회피(avoidance), 차별(discrimination)의 세 개 하위요인 29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이다. 문항은 연구자가 1차적으로 번역하고 심리학과 교수 2인, 박사 과정생 5인, 석사 과정생 3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에서 3차에 걸쳐 검토, 수정하였으며, 이중 언어사용자 2인의 역 번역 과정을 거쳐 확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1점(매우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4점(매우 동의한다)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차별주의가 심함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전체 척도의 *Cronbach's a*는 .86이었으며, 하위요인의 *Cronbach's a*는 적대적인 말 요인이 .76 회피 요인이 .65 차별 요인이 .77이었다(Fraboni 등, 1990). 본 연구의 자료를 Fraboni 등(1990)의 요인 구조를 기반으로 분석했을 때 전체 척도의 *Cronbach's a*는 .82이었으며, 하위요인의 *Cronbach's a*는 적대적인 말 요인이 .62, 회피 요인이 .75, 차별 요인이 .47로 나타났다.

노인에 대한 태도

Sanders, Montgomery, Pittman과 Balkwell(1984)이

개발한 의미분화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 SDS)를 한정란(2003)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각 문항은 서로 반대되는 형용사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형용사 쌍에 대해 7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능한 점수 범위는 최소 20점에서 최대 140점으로 20점은 노인에 대한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반영하고, 140점은 노인에 대한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반영한다. Sanders 등(1984)은 70~90점을 중립적 태도, 70점 미만을 부정적 태도, 90점 이상을 긍정적 태도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Cronbach's a*는 .86이었다.

노화에 대한 지식

Palmore(1988)가 개발한 Facts on Aging quiz I (FAQ I)과 Facts on Aging quiz II(FAQ II)를 바탕으로 한정란(2000)이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새로 개발한 한국판 노화에 대한 지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5개의 문항으로 Palmore가 개발한 FAQ I 중 15개 문항과 FAQ II 중 6개 문항, 윤진과 조석미(1982)가 개발한 경산노화사실인지척도 중 2개 문항 그리고 연구자가 새롭게 추가한 문항 2개로 구성된 것이다. 각 문항에 대해 맞다(O), 틀리다(X), 잘 모르겠다(?) 중 하나로 응답하도록 했으며, 채점 시 O, X 중 맞는 답을 한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하고 틀린 대답을 하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것은 모두 오답 처리하였다. 모두 맞으면 2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화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노인과의 접촉빈도 및 접촉의 질

Hutchison, Fox, Laas, Matharu와 Urzi(2010)이 사용한 노인접촉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총 6문항으로 3문항은 노인과의 접촉빈도와 관련된 내용이고, 나머지 3문항은 노인과의 접촉의 질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점(매우 그렇다) 사이에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접촉을 자주 그리고 긍정적인 접촉을 많이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전체문항의 *Cronbach's a*는 .86이었다.

사회적 바람직성

Paulhus(1998)이 개발한 BIDR(Balanced Inventory of Desirable Responding) 척도를 정보라(2005)가 타당화한 척도 중 자기기만 긍정성 척도 10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1점(전혀 아니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 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기만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는 .69이었다.

노인차별행동

실제 노인차별 행동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Cherry와 Palmore(2008)가 개발한 Relating to Older People Evaluation(ROPE)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20개로 긍정적 노인차별행동과 관련된 문항 6개와 부정적 노인차별행동과 관련된 문항 1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1점(전혀 안한다)에서 3점(종종 한다) 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채점은 긍정적 행동 차원과 부정적 행동 차원으로 나누어 이루어지며, 각 차원에서 총점이 높을수록 해당 차원 행동을 자주 그리고 많이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긍정적 노인차별행동 차원의 *Cronbach's a*는 .55, 부정적 노인차별행동 차원의 *Cronbach's a*는 .59이었다. *Cronbach's a* 값이 약간 낮은 편이었지만 본 척도가 행동 체크리스트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리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결 과

먼저 Fraboni 등(1990)과 Rupp 등(2005)의 요인구조가 한국판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요인 간 상관을 가정했고, 오차분산 간 상관은 가정하지 않았다. 분석 결과, 먼저 Fraboni 모델의 적합도는 $\chi^2(374)=857.711(p<.001)$, RMSEA=.062, CFI=.724, NNFI=.679, ECVI=3.098로 Hu와 Bentler(1999)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Rupp 등(2005)이 제안한 요인구조와 문항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Rupp 등(2005)의 요인구조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역시 요인 간 상관을 가정했고, 오차분산 간 상관은 가정하지 않았다. 분석 결과, 모델 적

합도는 $\chi^2(227)=558.651(p<.001)$, RMSEA=.066, CFI=.753, NNFI=.700, ECVI=2.097로 역시 적합도가 좋지 않았다. 이는 Fraboni 등(1990)의 원모델 및 Rupp 등(2005)의 재타당화 모델과는 다른 요인구조 모델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탐색적 요인분석

한국판 척도에서 적합한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표본 A를 대상으로 하여 Fraboni 등(1990)이 개발한 29문항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프로그램은 PAWS 18을 사용했고, 주축요인분해법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요인 간 상관을 가정하여 사각 회전 방법(Direct Oblimin)으로 요인회전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고유가가 1이 넘는 요인이 아홉 개로 나타났다. 하지만 요인 수를 9개로 상정하면 각 요인에 묶이는 문항이 의미 상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것이 있고, 속하는 문항 수가 하나인 요인도 있으므로 9요인 구조는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졌다.

명확한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척도의 전체 내적합치도를 확인하고 문항 삭제 시 전체 내적합치도가 증가하는 4개 문항을 삭제하였다('스포츠 시설 내에 노인들끼리 경쟁할 수 있는 특별한 클럽이 있어야 한다.',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의 모임에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야 한다.', '노인들의 정치적 발언을 장려해야 한다.',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데는 많은 돈이 들지 않는다.'). 남은 25개 문항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가가 1이 넘는 요인이 일곱 개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곱 개 요인으로 상정하면 각 요인에 묶이는 문항의 내용과 문항의 수가 적절하지 않으므로 7요인 구조 역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요인 수는 스크리 검사 결과, 해석 가능성, 각 요인에 속하는 문항 수를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스크리 검사는 스크리 도표에서의 고유값 감소치를 바탕으로 요인 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요인을 1개부터 차례로 추출하면서 고유값의 급격한 차이 및 평균화를 가지고 오는 요인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Cattell, 1966; 정송, 이순목, 이영선, 이민수, 2011에서 재인용).

해석 가능성의 고려는 각 요인에 묶이는 문항들이 해당 요인의 속성을 잘 반영하는지 알기 위해 외관 타당도를 확인하는 작업을 의미한다(Farmer & Aman, 2009). 이와 관련해 이순목(1995)은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적절한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해석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요인에 속하는 문항 수가 너무 적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요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분석 결과 묶이는 문항이 3개 이하인 요인이 없도록 요인 수를 결정하였다.

먼저, 스크리 도표를 확인한 결과, 2~4개의 요인이 가정될 때 고유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따라서 2요인, 3요인, 4요인을 추출하여 각각의 결과를 해석 가능성 및 요인에 속하는 문항 수를 바탕으로 평가하였다. 2요인 해의 경우, 한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 간 내용이 서로 이질적이어서 해석 가능성이 낮았다. 4요인 해의 경우도 역시 해석 가능성이 낮았고, 요인부하량 .35 이상을 기준으로 할 때 요인 4에 속하는 문항이 2개였다. 반면에 3요인 해는 해석 가능성도 높았고 각 요인 속하는 문항 수도 적절하였기 때문에 3요인을 최종 해로 결정하였다.

각 요인에 속하는 문항을 선택하기 위하여 한 요인에 대해 요인부하량이 .35 이상이면 좋은 문항이라고 판단하였고, 두 요인에 걸리는 요인부하량의 차이가 .10 이하이면 교차부하되는 문항이라고 간주하였다. 분석 결과, 요인부하량이 .35 이하인 문항이 2개였으며('10대의 자살이 노인의 자살에 비해 더 가슴 아픈 일이다.', '노인들도 매우 창의적일 수 있다'), 교차부하되는 문항이 6개였다('대부분의 노인들은 자신의 돈이나 가진 것을 베풀지 않고 모으려고만 한다.', '대부분의 노인들과는 지적이고 흥미로운 대화를 할 수가 없다.', '노인들은 자기 연령대의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노인이 아기를 돌보는 것은 미덥지 않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청결상태가 좋지 않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짜증을 유발할 수 있다.'). 요인분석을 사용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요인부하량이 낮거나 교차부하된 문항은 삭제 조치를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해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삭제하지 않는다(이수진, 2010; Farmer 등, 2009). 이와 관련하여 이순목(2000)은 해석 가능한 변수들에 의해

서 잘 정의된 요인들만 해석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요인계수보다는 해석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순목(2000)의 제안에 근거하여 기준미달 문항을 삭제하기 전, 해석 가능성을 고려할 때 삭제시키기에 부적합한 문항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심리학과 교수 1인, 박사 과정생 1인이 검토한 결과, 8문항 중 7문항의 내용은 어느 한 요인에만 속한다고 볼 수 없었으나 문항 1개(3번 문항: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신의 돈이나 가진 것을 베풀지 않고 모으려고만 한다.')는 고정관념 요인으로만 설명 가능하여 해당 요인의 외관 타당도를 높이는 문항이라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7개 문항은 삭제하고 3번 문항은 남기기로 결정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구조행렬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한편, 최종 결정된 18개 문항이 노인차별주의의 3요인을 잘 반영하고 있는 문항인지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하여 CEF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CEFA(Comprehensive Exploratory Factor Analysis)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Browne, Cudeck, Tatneni와 Mels(1999)가 개발한 통계 프로그램으로 요인해(factor solution)에 대한 합치도 지수(fit index) 및 검증 지수로 RMSEA, ECVI 값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Browne 등, 2008; 이수진, 2010에서 재인용). 18개 문항을 대상으로 2~4요인으로 가정하여 사각회전을 통해 분석한 결과, RMSEA값이 2요인 모형 .048, 3요인 모형 .035, 4요인 모형 .026이었다. RMSEA 값을 기준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4요인 모형이 3요인 모형에 비해 좋지만, 3요인 모형의 RMSEA 값도 .05 이하로 좋은 수준이고, RMSEA 값 차이가 .01 이하이면 통상적으로 모형적합도의 변화가 거의 없다고 판단할 수 있고(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11), 이론적 배경도 3요인을 지지하므로 3요인 모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1은 7문항으로 '나는 개인적으로 노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 '나는 노인들의 모임에 초대받아도 가고 싶지 않다.', '노인들과 함께 살고 싶지 않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1에 해당하는 문항 내용은 노인들과 함께 있거나 대화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므로

표 1. 한국판 노인차별주의 척도 18문항의 요인구조(구조행렬)

| 번호 | 문항내용 | 요인부하량 | | |
|------------------|---|-------|-----|-----|
| | | 1 | 2 | 3 |
| 요인 1:정서적 회피(7문항) | | | | |
| 15. | 나는 개인적으로 노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 | .75 | .24 | .33 |
| 13. | 나는 노인들의 모임에 초대받아도 가고 싶지 않다. | .70 | .21 | .31 |
| 26. | 노인들과 함께 살고 싶지 않다. | .63 | .32 | .43 |
| 21. | 노인들과 함께 있는 것은 매우 즐겁다. | .62 | .14 | .18 |
| 7. | 나는 노인들이 나에게 말을 거는 것이 싫다. | .59 | .40 | .25 |
| 24. | 대부분의 노인들은 흥미롭고 개성이 있다. | .52 | .12 | .21 |
| 6. | 나는 종종 노인들과 눈 마주치는 것을 피한다. | .52 | .09 | .24 |
| 요인 2:차별(5문항) | | | | |
| 20. | 노인들은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지 않도록 떨어져 사는 것이 가장 좋다. | .32 | .51 | .37 |
| 16. | 대부분의 노인들에게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주어서는 안된다. | .07 | .50 | .20 |
| 17. | 노인들에게 사실상 지역 스포츠 시설은 필요하지 않다. | .03 | .49 | .26 |
| 8. | 노인들은 우리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 | .24 | .48 | .07 |
| 22. | 노인들의 어려운 처지에 대해 들으면 슬프다. | .20 | .43 | .08 |
| 요인 3:고정관념(6문항) | | | | |
| 5. | 대부분의 노인들은 과거 속에 갇혀 산다. | .21 | .21 | .48 |
| 10. | 노인들 주변에 있을 때, 우울한 기분이 드는 것은 아마 일반적인 감정일 것이다. | .36 | .33 | .47 |
| 28. |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불평이 많다. | .28 | .26 | .45 |
| 4. | 대부분의 노인들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에 관심이 없는 대신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들과 지내는 것을 좋아한다. | .13 | .15 | .43 |
| 19. | 대부분의 노인들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과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 .19 | .02 | .42 |
| 3. |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신의 돈이나 가진 것을 베풀지 않고 모으려고만 한다. | .18 | .33 | .37 |

‘정서적 회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5문항으로 ‘노인들은 우리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R)’, ‘대부분의 노인들에게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주면 안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2에 해당하는 문항 내용은 노인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며 권리를 제한시키려는 행동 의도와 관련된 것이므로 ‘차별’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3은 6문항으로 ‘대부분의 노인들은 과거 속에 갇혀 산다.’,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불평이 많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3에 해당하는 문항 내용은 노인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고정관념’이라고 명명하였다. 척도의 전체 Cronbach α 는 .81이고, 각 요인별로는 요인 1의 Cronbach α 는 .82, 요인 2는 .61, 요인 3은 .61로 나타났다. 요인 간 상관

을 살펴보면 요인 1과 요인 2는 .31, 요인 1과 요인 3은 .42, 요인 2와 요인 3은 .32로 나타났다. 요인 간 상관관계수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요인 간 상관

| | 요인 2 | 요인 3 |
|------|-------|-------|
| 요인 1 | .31** | .42** |
| 요인 2 | . | .32** |

주. * $p < .05$, ** $p < .01$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 따른 수정된 3요인 구조가 가장 적절한 구조인지 확인하기 위해 표본 B를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Amos 18 프로그램

표 3. 한국판 노인차별주의 척도 모델 및 대안모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 모델 | χ^2 | df | RMSEA | CFI | NFI | NNFI | AIC | ECVI |
|-----|----------|-----|-------|------|------|------|---------|-------|
| (a) | 213.309 | 132 | .056 | .901 | .782 | .886 | 327.309 | 1.687 |
| (b) | 641.760 | 374 | .061 | .769 | .590 | .749 | 821.760 | 4.236 |
| (c) | 441.568 | 227 | .070 | .759 | .614 | .732 | 585.568 | 3.018 |

주.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CFI=comparative fit index, NFI=normed fit index, NNFI=nonnormed fit index,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ECVI=expected cross-validation index. 각 모델은 (a) 수정된 3요인 모델, (b) Fraboni 모델, (c) Rupp 모델

을 사용하였으며, 최대우도법으로 추정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모델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니 $\chi^2(132)=213.309$, RMSEA=.056, CFI=.901, NNFI=.886, ECVI=1.687로 모델 적합도가 좋은 수준이었다. 문항들의 표준화된 회귀계수 추정치 역시 .30~.75의 범위로 문항이 해당 요인에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문항 3번의 경우 비록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요인 2개에 교차부하되었으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회귀계수가 .57($p<.001$)로 추정되어 요인 3에 적절한 문항임이 확인되었다.

한편, 수정된 3요인 모델(a)이 기존 모델에 비해 더 나은 모델임을 확인하기 위해 Fraboni 등(1990)이 제안한 요인 모델(b)과 Rupp 등(2005)이 제안한 요인 모델(c)과 비교하였다. (a)부터 (c)까지 총 3개 모형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Maruyama(1998)에 따르면 비내포된 대안모델을 비교하기에 적합한 지수로는 AIC, ECVI, RMSEA 등이 있으며 이들 지수값이 작을수록 모델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Fraboni 등(1990)의 모델과 Rupp 등(2005)의 모델 모두 수정된 3요인 모델에 비해 적합도가 낮아, 수정된 3요인 모델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재검사 신뢰도 및 구성 타당도, 변별 타당도 및 예언 타당도 검증

147명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6명을 제외하고 131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전체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9 이었고, 정서적 회피 요인의 경우 .79, 차별 요인의 경우 .61, 그리고 고정관념 요인의 경우 .67 이었다. 또한 노인차별주의 척도 재검사에서 Cronbach's α 는 전체 척도는

.82, 정서적 회피 요인은 .84, 차별 요인은 .60, 고정관념 요인은 .62 이었다. 1차 검사와 재검사의 내적합치도 및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노인차별주의와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한 변인들과의 상관분석 결과, 전체 노인차별주의 점수 및 각 하위요인 점수는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전체: $r=.444, p<.01$, 정서적 회피: $r=.481, p<.01$, 차별 : $r=.144, p<.01$, 고정관념: $r=.294, p<.01$), 노인과의 접촉 빈도 및 질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전체: $r=-.408, p<.01$, 정서적 회피: $r=-.531, p<.01$, 차별: $r=-.134, p<.01$, 고정관념: $r=-.147, p<.01$), 노화에 대한 지식 점수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전체: $r=-.174, p<.01$, 정서적 회피: $r=-.117, p<.05$, 차별: $r=-.113, p<.05$, 고정관념: $r=-.170, p<.01$).

표 4. 검사-재검사 신뢰도 및 Cronbach's α

| | 검사-재검사 신뢰도 | 검사 Cronbach's α | 재검사 Cronbach's α |
|------|---------------|---------------------------|----------------------------|
| 요인 1 | .79 | .82 | .84 |
| 요인 2 | .61 | .61 | .60 |
| 요인 3 | .67 | .61 | .62 |
| 전체 | .79 | .81 | .82 |

변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사회적 바람직성 점수와의 상관을 확인한 결과, 정서적 회피 요인이 $r=-.166, p<.01$ 로 유의하게 나오기는 하였으나, 전체 점수는 $r=-.070, p>.05$, 차별은 $r=-.044, p>.05$, 고정관념은 $r=-.026, p>.05$ 로 유의한 상관이 발견되지 않아 노인차별주의는 사회적 바람직성과는 구분되는 개념임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예언타당도 지표인 노인차별행동 점수와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긍정적 노인차별행동의 경우

표 5. 노인차별과 타당화 변인 간 상관(N=336)

| | 노인차별주의 | 정서적 회피 | 차별 | 고정관념 |
|----------------|---------|---------|---------|---------|
| 노인에 대한 태도 | .444** | .481** | .144** | .294** |
| 노화에 대한 지식 | -.174** | -.117* | -.113* | -.170** |
| 노인과의 접촉 빈도 및 질 | -.408** | -.531** | -.134** | -.147** |
| 사회적 바람직성 | -.070 | -.166** | -.044 | -.026 |
| 긍정적 노인차별행동 | -.365** | -.466** | -.089 | -.167** |
| 부정적 노인차별행동 | .271** | .190** | .177* | .256** |

주. * $p < .05$, ** $p < .01$

차별 요인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전체 : $r = -.365$, $p < .01$, 정서적 회피 : $r = -.466$, $p < .01$, 차별 : $r = -.089$, $p > .05$, 고정관념 : $r = -.167$, $p < .01$), 부정적 노인차별행동의 경우 전체 점수와 하위 요인 점수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전체 : $r = .271$, $p < .01$, 정서적 회피 : $r = .190$, $p < .05$, 차별 : $r = .177$, $p < .05$, 고정관념 : $r = .256$, $p < .01$). 노인차별주의와 타당화 변인 간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측정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를 살펴보면 노인차별주의 점수 평균은 2.14($SD = .32$),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 평균은 81.26($SD = 12.55$), 노화에 대한 지식 점수 평균은 12.42($SD = 2.36$), 노인과의 접촉 빈도 및 질 점수 평균은 3.76($SD = 1.32$), 긍정적 노인차별행동 점수 평균은 1.74($SD = .34$), 부정적 노인차별행동 점수 평균은 1.32($SD = .19$), 사회적 바람직성 점수 평균은 2.73($SD = 1.90$)이었다.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변수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N=336)

| | 평균 | 표준편차 |
|----------------|-------|-------|
| 노인차별주의 | 2.14 | .32 |
| 노인에 대한 태도 | 81.26 | 12.55 |
| 노화에 대한 지식 | 12.42 | 2.36 |
| 노인과의 접촉 빈도 및 질 | 3.76 | 1.32 |
| 긍정적 노인차별행동 | 1.74 | .34 |
| 부정적 노인차별행동 | 1.32 | .19 |
| 사회적 바람직성 | 2.73 | 1.90 |

논 의

본 연구는 노인차별주의를 측정하는 도구인 FSA의 한국판 척도를 타당화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우선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3요인 구조를 발견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이 새로운 3요인 모델이 Fraboni 등(1990)의 원척도 요인 모델, Rupp 등(2005)의 요인 모델보다 적절한 모델인지 확인하였다. 또한, 검사-재검사 상관과 내적합치도 검사로 신뢰도를 살펴보고, 관련 변인과의 상관을 봄으로써 구성타당도, 변별타당도 및 예언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Fraboni 등(1990)의 척도 및 Rupp 등(2005)의 척도와 마찬가지로 세 요인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각 요인의 내용 및 문항 구성은 기존 척도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Fraboni 등(1990)의 척도의 세 요인은 Allport가 제안한 차별의 5 단계 중 세 단계 즉, 적대적인 말, 회피, 차별이었고, Rupp 등(2005)이 재타당화한 척도의 세 요인은 고정관념, 분리, 정서적 태도였던 반면, 본 연구에서 발견된 세 요인은 정서적 회피, 차별, 고정관념이었다. 이 요인구조는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는 정서적 요소, 인지적 요소, 행동적 요소의 3가지 요소로 이루어지며, 노인차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Cuddy 등(2002)의 주장과 일치한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전통적으로 태도를 3가지 요소의 조합으로 보며, 특히 집단을 기반으로 하는 태도인 경우에는 편견, 고정관념, 차별로 나타난다고 설명한다(Cuddy 등, 2002). 본 연구의 정서적 회피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내용은 부적인 정서를 기반으로 노인과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마음을 반영하기 때문에 정서적 요소인 편견을 나타내며, 차별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내

용은 노인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적극적인 행동의지를 반영하기 때문에 행동적 요소인 차별을 나타내며, 고정관념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내용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 믿음과 오해를 반영하므로 인지적 요소인 고정관념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밝힌 요인 구조는 FSA 개발 목적에 부합하는 노인차별주의의 구조를 반영한다고 보여진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Fraboni(1990)의 3요인 모형과 Rupp(2005)의 3요인 모형에 비해 탐색적 요인 분석에서 확인한 3요인 구조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더 좋아 새로운 3요인 구조가 더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요인 간 상관을 살펴보면 .31에서 .42의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노인차별주의의 하위 요인들이 개념 상 중첩되지만 서로 구분되는 개념임을 의미한다.

구성타당도, 예언타당도 및 변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변인인 노인에 대한 태도, 노화에 대한 지식, 노인과의 접촉 빈도 및 질, 노인차별행동, 사회적 바람직성과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먼저 노인차별주의는 노인에 대한 태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한정란(2003)은 노인에 대한 태도가 노인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으로 대상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 속성에서 부정적 속성까지의 연속선상에 위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상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할수록 대상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예상과 일치하며, 이는 2 종류의 도구로 측정된 노인에 대한 태도가 FSA와 상관을 보였던 Rupp 등(2005)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다음으로 노인차별주의는 노화에 대한 지식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노화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을수록 노인차별주의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노화에 대한 지식과 FSA 점수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던 Fraboni 등(199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노화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기존 연구 결과와도 부합한다(Holtzman 등, 1981; 한정란, 2000).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두 변인 간 상관계수 값이 크지 않은 것인데 이는 Allan과 Johnson(2008)의 연구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Allan 등(2008)은 노화에 대한 지식, 노화불안, 노인에 대한 태

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노화에 대한 지식은 노화불안이 매개할 때만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노화에 대한 지식과 노인차별주의의 관계 역시 직접적이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노화에 대한 지식과 노인차별주의의 관계에 대해 추가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노인차별주의는 노인과의 접촉 빈도 및 질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노인과 접촉한 경험이 많거나 노인과의 접촉 경험이 좋은 경우 노인차별 경향이 낮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Allport의 접촉 이론(1954)에서는 집단 간 편견과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집단 구성원과의 긍정적 경험을 증가시키면 편견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한다. 접촉 빈도가 적고 접촉의 질이 좋지 않으면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Pettigrew와 Troop(2006)의 메타분석 연구 결과와 학기 중에 노인과 함께 활동을 많이 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노인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다는 연구(Aday 등, 1991) 결과들은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다음으로 노인차별주의는 부정적 노인차별행동과는 전체 및 모든 하위요인이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 긍정적 노인차별행동과는 차별 요인을 제외하고 부정적 상관을 보였다. 노인차별주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노인차별행동을 많이 한다는 결과는 타당해 보인다. 정서, 인지, 행동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있다면, 당연히 그들을 대하는 행동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FSA의 하위요인으로 차별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이는 제도적인 차별이나 차별 행동의도와 관련된 것인 반면 ROPE는 실제로 차별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Cherry 등, 2008). 따라서 노인차별주의와 부정적 노인차별행동 간의 정적 상관은 노인차별주의가 실제로 노인을 향한 부정적인 행동으로 연결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노인차별주의가 긍정적 노인차별과는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결과는 Palmore(1990)의 연구로부터 해석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Palmore(1990)는 노인차별의 유형론을 제시하면서 노인차별이 긍정적 형태와 부정적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나이를 든 사람에게 호의를 표현하고, 유쾌하게 대하는 것은

일견 노인차별과 관련이 없는 것 같으나, 이는 나이가 든 사람은 특별한 보살핌과 대우가 필요하고 경제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으로부터 비롯된 차별적 행동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긍정적 차별행동은 대상을 미화시키고,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것과 관련된 것인지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감정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Palmore, 1990). FSA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믿음과 감정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긍정적인 노인차별행동 측정치와는 부적인 상관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한편, 노인차별주의는 사회적 바람직성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Fraboni 등(1990)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FSA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는 경향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객관적인 도구임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노인차별주의 점수는 선행 연구에서 조사된 서구인의 노인차별주의 점수와 비교했을 때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 FSA를 사용하여 젊은 성인들의 노인차별주의를 측정한 연구로 캐나다인을 대상으로 한 Fraboni 등(1990)의 연구,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Rupp 등(2005)의 연구, 이스라엘인을 대상으로 한 Bodner 등(2008)의 연구가 있다. 비록 이들 선행 연구들은 전체 점수를 보고하지 않고 요인별 점수만을 보고하였고 연구마다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통계적 검증은 어렵지만, 평균 점수를 보았을 때 노인차별주의 점수는 이스라엘인, 한국인, 캐나다인, 미국인 순서로 나타났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상호의존성 및 개인 간 유대를 강조하는 집합주의 문화권이고 특히 한국은 역사적으로 노인공경을 미덕으로 삼는 유교 문화권에 속하는 반면, 캐나다와 미국은 개인의 독립성을 중시하고 젊음에 가치를 두는 개인주의 문화권이므로 캐나다인, 미국인 대상 연구보다 한국인, 이스라엘인 대상 연구에서 노인차별주의 점수가 더 낮게 나올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기대와 모순되며 노인에 대한 태도가 문화보편적으로 부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Barak 등, 2001; Ryan 등, 2004; Harwood, 1996). 이러한 결과에 대해 몇몇 연구자들은 동아시아가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사회적

가치가 변화하면서 노인에 대한 태도 역시 서구와 유사하게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반면(Harwood 등, 1996, 2001; Ryan 등, 2004에서 재인용), 다른 연구자들은 개인 내면에 존재하는 노화와 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반드시 노인을 공경해야 한다는 공적 규범의 수용과 상충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해석한다(Koyano, 1989; Levy, 1999; Sharps, Price- Sharps, & Hanson, 1998; Ryan 등, 2004에서 재인용). 이들 중 어떤 해석이 타당한지는 추가적인 후속 연구를 통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노인이 아닌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노인차별주의의 다차원적 측면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도구인 FSA를 국내에 소개하여 한국판 타당화를 실시하고 현재 대학생 집단의 노인차별주의를 처음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노인차별주의는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적 구성개념이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누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별이 대상이 되며, 차별은 심리적 안녕감 감소 및 해고와 같은 부정적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세대 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의를 요하는 개념이다. 앞으로 본 연구에서 타당화한 한국판 노인차별주의 척도가 노인차별 개념을 이해하고, 그 기제 및 결과 등을 확인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서는 노인차별의 실태를 이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밝히고 이를 보완하는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FSA의 내적 합치도인 *Cronbach's a*는 .82~.61(재검사에서 .84~.60)로 일부 하위요인에서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는 FSA의 개발과 타당화를 실시하였던 기존 연구에서도 발견되는 현상으로 Fraboni 등(1990)에서 하위요인의 *Cronbach's a*는 .65~.77이었고, Rupp 등(2005)의 연구에서는 .70~.79였다. 이와 관련해 Rupp 등(2005)은 낮은 내적 합치도를 보인 요인에 대해 추가 문항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일부 요인에서 내적 합치도가 낮은 이유를 밝히고 내적 합치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20대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 결과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일반화시키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서구의 선행 연구들에서 나이가 적은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노인차별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Bell & Stanfield, 1973a, 1973b; Kogan, 1961; Kogan & Shelton, 1962; Rupp 등, 2005에서 재인용). 이는 표본의 연령대에 따라 노인차별주의가 다를 수 있으며 나아가 노인차별주의 척도의 요인구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타당화한 노인차별주의 척도를 다양한 연령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교차타당도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노인을 법적 기준인 65세 이상으로 정의했다. 하지만 일상에서 사람들이 노인을 정의하는 기준은 사람에 따라,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 성별이나 인종과 달리 나이의 많고 적음은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Bytheway(1995; Iversen 등, 2009에서 재인용)는 많은 나이라는 것은 절대적 범주가 아닌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범주이기 때문에 이것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노인차별의 대상이 되는 노인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정의된 집단인지 확인하고, 노인차별주의 척도가 노인의 정의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타당도 확인을 위해 소수의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만을 확인하였는데 미래에는 노인차별과 관련된 여러 변인 간의 관계를 더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TMT(terror management theory) 관점에서는 노인차별을 죽음 필연성의 자각에 대한 반응으로 설명한다(Martens, Goldenberg, & Greenberg, 2005; Greenberg 등, 2002).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죽음불안을 포함한 다양한 변인들과 노인차별주의와의 상관관 확인함으로써 노인차별주의 척도의 타당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록 노인차별이 범문화적인 현상이지만 (Jin 등, 2001; Cuddy 등, 2005), 한국 사회에 서구와는

다른 노인차별적 특성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FSA는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는 척도이므로 한국판 FSA를 사용하면 한국의 노인차별주의를 다른 문화권의 노인차별주의와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의 노인차별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를 측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의 독특한 노인차별주의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는 척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미정 (2010). 미디어 속, 노인의 타자 이미지. *건지인문학*, 3, 217-139.
- 김욱 (2003). 노인차별의 실태 및 관련요인에 관한 탐색적 조사연구. *한국노년학*, 23, 21-35.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11).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논문쓰기. 커뮤니케이션 북스.
- 남석인 (2008). 남성노인의 차별경험이 노인인식 및 노년기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족기능과 동년배 관계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노년학*, 28, 1297-1315.
- 안준희, 김승용 (2009). 노인의 차별경험이 자아이미지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 경제적 참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9, 1645-1663.
- 원영희 (2005). 노인차별 피해경험이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21, 319-339.
- 윤진, 조석미 (1982). 『경산노화사실인지척도』의 구성 연구: 한 교육측정적 접근. *한국노년학*, 2, 5-15.
- 이수진 (2010). 상황판단형 건설도검사의 개발 및 내적 구조에 기초한 타당도 검토.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순목 (1995). *요인분석I*. 서울: 학지사.
- 이순목 (2000). *요인분석의 기초*. 교육과학사.
- 이창호 (2002). 주제발표2: 세대 간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 *한국청소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pp. 131-140.
- 전상남, 신학진 (2011). 노인차별경험과 우울과의 관계

- 에서 고독의 매개효과. *한국노년학*, 31, 925-938.
- 정보라 (2005). 사회적 바람직성의 구인 탐색.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송, 이순목, 이영선, 이민수 (2011). MMPI 단축형 우울척도 개발: 문항기반 요인분석의 사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 811-830.
- 통계청 (2011). 2010 고령자 통계.
- 한정란 (2000).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노화에 관한 지식과 태도에 대한 연구. *연세교육연구*, 13, 191-206.
- 한정란 (2003). 청소년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 *한국노년학*, 23, 181-194.
- 張卓 (2010). 死亡凸顯條件下年齡偏見的表達. 북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llan, L., & Johnson, J. (2008). Undergraduate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The role of knowledge, contact and aging anxiety. *Educational Gerontology*, 35, 1-14.
- Allport, G.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NY: Doubleday.
- Aday, R., Sims, C., & Evans, E. (1991). Youth'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The impact of intergenerational partner.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10, 372-384.
- Avolio, B. & Barrett, G. (1987). Effects of age stereotyping in a simulated interview. *Psychology and Aging*, 2, 56-63.
- Boggatz, T., & Dassen, T. (2005). Ageing, care dependency, and care for older people in Egypt: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Clinical Nursing*, 14, 56-63.
- Bagozzi, R. (1978).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affective, behavioral, and cognitive components of attitude by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13, 9-31.
- Barak, B., Mathur, A., Lee, K., & Zhang, Y. (2001). Perceptions of age-identity: a cross-cultural inner-age exploration. *Psychology and Marketing*, 18, 1003-1029.
- Bodner, E. (2009). On the origins of ageism among older and younger adults.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21, 1003-1014.
- Bodner, E., & Lazar, A. (2008). Ageism among Israeli students: structure and demographic influences.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20, 1046-1058.
- Boudjemad, V., & Gana, K. (2009). L'âgisme: Adaptation française d'une mesure et test d'un modèle structural des effets de l'empathie, l'orientation à la dominance sociale et le dogmatisme sur l'âgisme. *Canadian Journal on Aging*, 28, 371-389.
- Bowling, A. (2007). Honour your father and mother: Ageism in medicine. *British Journal of General Practice*, 57, 347-348.
- Butler, R. (1980). Ageism: A foreword. *Journal of Social Issues*, 36, 8-11.
- Butler, R. (1995). Ageism. In G. Maddox (Ed.), *The encyclopedia of aging* (pp. 38-39). New York: Springer.
- Chang, B., Chang, A., & Shen, Y. (1984). Attitudes toward aging in the United States and Taiwan.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15, 109-130.
- Cherry, K., & Palmore, E. (2008). Relating to older people evaluation(ROPE): A measure of self-reported ageism. *Educational Gerontology*, 34, 849-861.
- Cuddy, A., Norton, M., & Fiske, S. (2005). This old stereotype: The stubbornness and pervasiveness of the elderly stereotype. *Journal of Social Issues*, 61, 265-283.
- Cuddy, A., & Fiske, S. (2002). Doddering but dear: Process, content, and function in stereotyping of older persons. In Nelson, T. D. (Ed.), *Ageism: Stereotyping and prejudice against older persons*. (pp. 3-26).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 Cuddy, A., Fiske, S., & Glick, P. (2007). The BIAS

- Map: Behaviors from intergroup affect and stereotyp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 631-648.
- Depaola, S., Griffin, M., Young, J., & Neimeyer, R. (2003). Death anxiety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among adults : The role of gender and ethnicity. *Death Studies*, *27*, 335-354.
- Dinkle, R. (1944). Attitudes of children toward supporting aged paren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9*, 370-379.
- Farmer, C., Aman, M. (2009). Development of the children's scale of hostility and aggression: reactive/proactive(C-SHARP). *Research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30*, 1155-1167.
- Fraboni, M., Saltstone, R., & Hughes, S. (1990). The Fraboni scale of ageism(FSA): An attempt at a more precise measure of ageism. *Canadian Journal on Aging*, *9*, 56-60.
- Greenberg, J., Schimel, J., & Martens, A. (2002). Ageism: Denying the face of the future. In T. D. Nelson (Ed.), *Ageism: Stereotyping and prejudice against older persons* (pp. 27-48).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 Gordon, R., & Arvey, R. (2004). Age bias in laboratory and field settings: A meta-analytic investigatio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4*, 1-27.
- Holtzman, J., Beck, J., & Ettinger, R. (1981). Cognitive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the aged of dental and medical students. *Educational Gerontology*, *6*, 195-207.
- Hu, L. & Bentler, P.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Hutchison, P., Fox, E., Laas, A., Matharu, J., & Urzi, S. (2010). Anxiety, outcome expectancies, and young people's willingness to engage in contact with the elderly. *Educational Gerontology*, *36*, 1008-1021.
- Iversen T., Larsen, L., & Solem, P. (2009). A conceptual analysis of ageism. *Nordic Psychology*, *61*, 4-22.
- Jin, Y., R yan, E., & Anas, A. (2001). Korean beliefs about memory and aging for self and other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52*, 103-113.
- Kogan, N. (1961). Attitudes toward old people: The development of a scale and an examination of correlate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2*, 44-54.
- Lasher, K., & Faulkender, P. (1993). "Measurement of aging anxiety: Development of the anxiety about Aging Scal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7*, 247-259.
- Levenson, A. (1981). Ageism: A major deterrent to the introduction of curricula in aging. *Gerontology and Geriatrics Education*, *1*, 161-162.
- Levy, B., & Langer, E. (1994). Aging free from negative stereotypes: Successful memory in China and among the America dea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989-997.
- Levy, B., & Leifheit-Limson E. (2009). The stereotype-matching effect: Greater influence on functioning when age stereotypes correspond to outcomes. *Psychology Aging*, *24*, 230-233.
- Levy, B., Zonderman, A., Slade, M., & Ferrucci, L. (2009). Age stereotypes held earlier in life predict cardiovascular events in later life. *Psychological Science*, *20*, 296-298.
- Martens, A., Goldenberg, J., & Greenberg, J. (2005). A terror management perspective on ageism. *Journal of Social Issues*, *61*, 223-239.
- Maruyama, G. (1998). *Basic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ousand Oaks, CA: Sage.
- Nelson, T. (2005). Ageism: Prejudice against our feared future self. *Journal of Social Issues*, *61*,

- 207-221.
- Nelson, T. (2002). *The psychology of prejudice*. Boston: Allyn and Bacon.
- Ng, T., & Feldman, D. (2009). Age, work experience, and the psychological contract.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30*, 1053-1075.
- North, M., & Fiske, S. (2012). An inconvenienced youth? ageism and its potential intergenerational roots. *Psychological Bulletin, 26*, 1-16.
- Palmore E. (1990). *Ageism: Negative and positive*. New York: Springer.
- Palmore, E. (1988). *The facts on aging quiz*. NY: Springer Publishing Co.
- Palmore, E. (2001). The ageism survey: First findings. *The Gerontologist, 41*, 572-575.
- Paulhus, D. (1998). *Paulhus Deception Scales(PDS): The balanced inventory of desirable responding 7: User's manual*. North Tonawanda, New York: Multi-Health systems.
- Pettigrew, T., & Tropp, L. (2006). A meta-analytic test of intergroup contact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 751-783.
- Rodin, J., & Langer, E. (1980). Aging labels: The decline of control and the fall of self-esteem. *Journal of Social Issues, 36*, 12-29.
- Rosencranz, H., & McNevin, T. (1969). A factor analysis of attitudes toward the aged. *Gerontologist, 9*, 55-59.
- Rupp, D., Vodanovich, S., Credé M. (2005). The multidimensional nature of ageism: Construct validity and group difference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5*, 335-362.
- Ryan, E., Jin, Y., Anas, A., & Luh, J. (2004). Communication beliefs about youth and old age in Asia and Canada.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19*, 343-360.
- Salter, C., & Salter, C. (1976). Attitudes toward aging and behaviors toward the elderly among young people as a function of death anxiety. *Gerontologist, 16*, 232-236.
- Sanders, G., Montgomery, J., Pittman, J., & Jr., Balkwell, C. (1984). Youth's attitudes toward elderly.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3*, 59-70.
- Shore, L., & Goldberg, C. (2004). Age discrimination in the work place. In Dipboye, R. & Colella, A. (Eds.), *The psychological and organizational bases of discrimination at work* (pp. 203-225).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Tsuno, N., & Homma, A. (2009). Ageing in Asia-The Japan Experience. *Ageing Int, 34*, 1-14.
- Whitbourne, S., & Sneed, J. (2002). The paradox of well-being, identity processes, and stereotype threat: Ageism and its potential relationships to the self in later life. In Nelson, T. D. (Ed.), *Ageism: Stereotyping and prejudice against older persons*. (pp. 3-26).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 Yun, R., & Lachman, M. (2006). Perception of aging in two cultures : Korean and American views on old age. *J cross Cult Gerontol, 21*, 55-70.
- Zajonc, R. (1998). Emotions. In Gilbert, D., Fiske, S., & Lindzey, G. (Ed.),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pp. 591-634). Boston: McGraw-Hill.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Fraboni Ageism Scale(FSA): A Study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Ji-Yeon,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Min-Hee, Kim

Korea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Kyung-Hwan, Mi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resent research is aimed at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Fraboni scale of ageism which was developed by Fraboni, Saltstone and Hughes(1990). To do so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ith sample A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ith sample B was conducted. As a result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it appeared that three factor structure consisting of Affective avoidance, Discrimination, and Stereotype. This result supported the theoretical model of ageism which emphasize multi-factor nature of affective component, cognitive component, and behavior component. Total items and subscales of the Korean version FSA has proper internal consistency and test-retest reliability. It was proved that the new three factor structure has better fit index than other structures. And it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attitude toward the elderly and negative ageist behaviour, negatively correlated with knowledge of aging, frequency and quality of contact with the elderly, and positive ageist behaviour, and not correlated with social desirable respons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Korean version of the FSA is reliable and valid instrument to measure ageism.

Keywords: Korean version of the Fraboni scale of ageism, ageism, attitude toward the elderly, FSA

1차원고 접수일 : 2012년 07월 12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12년 11월 06일

게재 확정일 : 2012년 11월 08일